

나실인

사사기 13:1-7, 누가복음 1:67-80

최정웅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참사랑 가족들이 모여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성령의 충만을 주사 올바르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 홀로 받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샌프란시스코는 이름답고 부유한 도시였다. 미국에서도 집이 제일 비싼 동네라고 한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살기 힘들겠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이름답고 좋은 도시였다. 그런데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그곳은 마귀 교회가 있는 곳이었다.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사는 동네였다. 아주 험난한 도시였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번 집회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집회였다. 여러분이 수고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거기에서도 보았다. 참여한 성도들 너무 수고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

총선을 40일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곳곳에서 선거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분이 왔다 가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을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는다. 특히 이렇게 출마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에서 인망도 많이 쌓은 분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르고 따르는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분들이 모인 정치 현장은 너무나 기대에 어긋나는 곳이다. 백성들이 실망하는 곳이다. 문제 투성이가 되어 버렸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 인제가 많은데 왜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 이 시대의 정말 큰 문제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답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에 대한 진짜 답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다. 세상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오직 참된 복음밖에 없음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말이다. 이 사람을 가리켜 나실인이라고 한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이 나실인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어릴 때 교과서를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다. 한 소년이 동네 옆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누구라도 좋으니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한 것이다. 날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바로 당신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군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나실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곤고한 일이 많고 또 많지만, 평안을 모르고 쉬는 날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끝났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제목들을 찾기 원한다.

1. 이 시대는 불가능의 시대.

첫째는, 하나님은 왜 나실인을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다. 이 시대가 불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불가능의 문제를 이 시대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실인을 찾고 계신 것이다.

(1)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재앙에 너무나도 시달리고 있다. 전쟁과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많은 불치병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에이즈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했는데 그게 극복되었다. 예방주사가 나왔다. 이것을 두고 빌 게이츠가 수억 달러를 내놓았다. 그래서 극복되었나 했는데, 또 새로운 악한 질병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유럽 선진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는데, 길 가는 사람을 그냥 이유없이 죽이는 것이다. 쇼팽하러 온 사람들,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 이유 없이 폭탄테러로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 나가면 바로, ‘쇼팽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일이 생기면 대사관으로 연락하라’고 문자가 온다. 가는 곳마다 그런 메시지가 온다. 그만큼 위험해진 것이다. IS에서 20명을 죽이겠다고 명단을 만들어서 공포했는데,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일반인이 몇 명 있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름을 지워놓아서 누구인지도 모른다. 혹시 나일수도 있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 니,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온 모양이다. 그래서 도로에 차를 세웠는데, 도둑이 이 차를 다 털어갔다고 한다. 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의 가방을 다 가지고 갔다고 한다. 지갑은 다행히 거기 없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 가장 깊이가 비싼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갑자기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노력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점점 더해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지구는 정신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다른 나라는 다 놔두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국민의 25%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한다. 쉬쉬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돈을 벌어도, 공부를 잘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불가능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다.

(2) 왜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불가능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① 지구상 책 중에서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문제가 영세 전의 문제다. 창조 이전에 영적 세계가 있었다.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리고 쫓겨났다.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다.
- ② 그런데 이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지구상에 출현해서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다.
- ③ 여기에 빠진 인간은 계속 살아가면서 무속, 점술에 빠지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마귀를 섬기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의 모습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의 불가능의 근본 상태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치안이 그래도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란다. 길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길에서 자고 있어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베이 에어리어(bay area)에서 바다를 향해 있는 집은 다 천만 달러를 호가한다고 한다. 100억 원 쯤 되는 돈이다. 그런 집에서 사는데, 문제 투성이라는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온하고 발전되어 있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사실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는 눈을 열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전에 심방을 다녀 봤는데, 그때 우리가 어렵게 살 때였다. 부자집에 가면 장롱이나 여러 가구들이 있지 않나? 우리 심방대원들이 그런 가구들을 만져 보면서 어쩔 줄을 모른다. 감탄하면서 ‘와~’ 하는데, 저런 분들은 심방대원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싶었다. 세상 것에 현혹되고 그에게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수준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한다.

(3) 이것이 결국 어떤 문제로 오는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와 실패로 오는 것이다. 이것을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난민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자 동네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시작한다. 우상을 섬기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음과 지옥 심판을 당한다. 후손들에게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이다.

(4) 이것이 사회 전체에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태. 사사기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이 불가능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전쟁과 재앙이 계속 찾아오게 되었다. 결국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과 시달림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램프들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일을 당했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인간의 힘으로 조금 막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로 계속 빠져 가게 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서, 살릴 준비를 하는 참사랑교회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 예수 믿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다. 이번엔 여러분이 시청 앞 광장에 갔는데, 여چه 그 대표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갔다. 여러분 덕분에 이 행사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인사를 했다. 자기들은 고연계 환우들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나이가 전부 70이 넘었다고 한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니까, 추우니까 건넌 수가 없었다. 추워서 전부 시청으로 들어가고 지하철 역으로 들어가서 피해서 벌벌 떨었다고 한다. 그런데 교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나보니 청소할 것도 없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나 말고 류목사님한테. (웃음) 그래서 류목사님이, “우리 멤버들이 다 그렇습니다.” (웃음) 그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어떤 환경, 처지, 형편이 문제가 안 된다. 장소도 문제가 안 된다. 세상 모든 곳에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나실인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2. 하나님은 나실인을 찾고 계신다.

두 번째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불가능의 시대를 해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나실인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다.

(1) 나실인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다. 히브리말인데, 나지르라는 말이다. 나실인은 ‘나지르 사람’이라는 말인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구별되었다는 말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말이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세상과 다르다는 말이다. 무엇이 구별되었다는 것인가? 다 똑같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것이다. 불신자들과 생긴 것도 비슷하고, 기도 비슷하고, 돈 버는 것도 비슷하고, 공부하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집 평수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것이다. 뭐가 말인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성전인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냐.” 이번 주간에 이것을 잊지 마라.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 계시다. 그게 다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에 시달리는 신분이 되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지옥 배경에 속한 신분이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 자녀였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확실히, 깨끗이, 완전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 속에서 이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란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죄로 인해서 온 저주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지옥 배경 문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것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고후5:17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 램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 그래서 이렇게 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1:5의 말씀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 요1:12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것을 보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착실히 살기는 뭘 착실히 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영영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영감이 올 때마다 두 번이나 미국을 다녀왔다. 그런데도 이렇게 팔팔하다. 왜 그런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것이다. 그런가 하는 분들은 갔다 와 보라. 한 며칠은 움직이지도 못한다. 1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조심스레 물어보더라.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다. (웃음)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신분이 되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잘못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 원수가 고발하는 말에 짓눌리지 말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란다. 천사가 동원된다. 사탄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결박된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는 베이 에 이리어의 저 대단한 집을 봐도, ‘에이, 좋아 봐도 내 집만 못하구나. 곧 갈 그 집이 내 집이다.’ 부러운 분은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오라. (웃음)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전도자, 제자가 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불신앙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을 주는 전도자가 된 것이다. 아멘! 감사하라. 이것이 나실인이라는 말이다. 이 축복을 정말 받았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란다.

(2) 이 신분을 가질 뿐 아니라, 나실인은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 시대에 역사하는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사람이다. 빼앗긴 문화를 회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다. 듣기만 해도 기록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저 어네스트가 다른 사람을 기다렸는데 바로 자기가 그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다. 좀 공부 못 해도 괜찮다. 요셉처럼 노예여도 괜찮다. 거기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다. 그러면서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보이콧스카우트 학생이 길을 인도해 주기에, 10달러 지폐를 용돈으로 줬더니, “No. 보이콧스카우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소년입니다. 감사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보이콧스카우트도 하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왜 못 하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현장에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응답을 한 주간동안 계속 누리시기 바란다.

(3)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충만을 누리는 사람이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창1:26-28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돌볼 수 있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다. 행1:8은,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다 우리 동네에, 사마리아 열 동네, 이웃 일본 중국까지, 땅 끝까지, 온 세상 다니면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여,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 앉아서 그것만 기도했다. “주여, 주의 백성이 여기 모였으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면 가능한 줄 믿는다. 요셉을 보고, ‘이런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윗은 ‘이 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리라.’ 엘리사는 “내게 잡철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능력을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시로 성령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바로 임할 텐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나.

(4)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이 셋13장이자. 이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이름을 18절에 보니까 기묘자라고 했다. 사9:6-7에 보니까, 그 기묘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회복하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우상 문화와 싸움 나실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아이에게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공부할 힘도 생긴다. 공부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충만해서 공부하시기 바란다. 사업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루터는 보통 때는 두 시간 기도하지만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네 시간 기도한다고 했다. 우리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이다. 안 되거든,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 마노아의 아들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던 삼손이었다.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삼손과 비교할 수 없는 나실인의 축복을 모두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의 시대 문제를 해결할 나실인을 찾고 계신다. 그 나실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체험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료서의 인생이다.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 인생은 나실인으로서의 인생,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인생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현장에서 누려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를 구별된 자로 알고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말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훌륭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복음을 누리라는 말이다. 복음을 누리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려고 애쓰다가 종교인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다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기를 바란다. 구별된 자로 인정될 만큼 나의 모든 삶의 기본 틀을 3오늘로 바꾸시면 된다. 모든 방향은 말씀으로 잡는 것이다.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기도 속에 있다. 참사랑 가족들, 기도하자. 50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붙잡아 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 모든 만남은 전도로 바꾸는 것이다. 이 해답을 가지고, 가정과 기문과 현장과 후대의 모든 불가능 문제를 완전히 뒤집는 나실인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40일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구원 받은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영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